

新聞에 사용된 句讀點 調査

—記事題目을 中心하여—

A Survey of the Punctuations used in the Newspapers

指 導 金 光 涉
 調 査 王 宗 先

<目 次>

- | | |
|----------------------------------|----------------------------|
| 1. 序 | (7) Parentheses (도립) |
| 2. 目 的 | (8) Dash (줄표) |
| 3. 假 設 | (9) Hyphen (붙음표) |
| 4. 對象 및 方法 | (10) Quotation Mark (따옴표) |
| 5. 定 義 | (11) Apostrophe |
| (1) Comma (반점) | (12) Ellipsis Periods (점줄) |
| (2) Semicolon (쌍반점) | (13) 其他 I, II, III, IV |
| (3) Colon (쌍점) | 6. 調査內容 I |
| (4) Period 또는 Full-Stop (끝점, 은점) | 7. 調査內容 II |
| (5) Question Mark (물음표) | 8. 結 論 |
| (6) Exclamation Mark (느낌표) | |

序

「매스·미디어」의急速한 電子化 및 機械化는 「매스·콤」內容의 多樣性和 敏速性을 낳아 주었다. 이로서 世界의 距離는 無限히 短縮되었으며 더욱 廣凡한 文化에 接觸하게 되었다.

生活의 道具로서 必需品化된 오늘날의 「매스·미디어」는 뉴스를 傳達할 뿐만 아니라 娛樂과 教養을 提供하는 親友이자 先導者로서 登場하였다. 이로서 「매스·콤」은 Walter Lippman이 創案한 類似環境(Pseudo-environment)을 形成하였다. 때문에 現代人들은 스스로 지내는 思考의 限界를 無視하며 모든 客觀的 判斷根據를 이 類似環境에 두고 있다.

이렇게 雜多하고 機械化된 文明과 生活가운데서 波濤처럼 밀려오는 모든 事件에 參與하여 個個의 本意를 하나 하나 探知하고 分析하여 自己의 것으로 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흐름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大部分의 사람들은 直接的인 關聯 以外에는 客觀的 判斷을 믿고 그것에 따라 生活을 營爲하는 것이다. 「매스·미디어」는 참으로 重大한 使命과 責任을 갖고 있다. 勿論 이는 各己의 領域과 機能 및 手段에 따라 다를 것이다.

本稿에서는 「매스·미디어」 가운데 新聞을 擇하여 句讀點에 關係되는 몇가지를 檢討하려 하였다.

句讀點은 우리 特有的인 것이 아니고 外來表記이니 만큼 言語의 概念의 差에서 오는 不自然性이 있기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新聞編輯에 있어서는 이 句讀點을 다루는데 關心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듯 생각된다.

句讀點 表記뿐만 아니라 그 規格에 있어서도 참으로 苦笑을 禁치 못할 程度로 怪異한 境遇가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新聞編輯의 矛盾性을 나타내고 編輯의 規律과 一貫性이 없이 氣分에 따르는 듯한 印象을 줄 때가 있다.

물론 句讀點이란 編輯의 至極히 적은 部分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마치 눈이 어두운 사람의 안경처럼 明確한 理解를 도와주며 때때로 句讀點을 使用치 않거나 잘못 使用함으로써 엄청난 混亂을 招來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비록 記事題目에 그 調査를 局限시켰으나 充分한 量의 資料를 通하여 句讀點 各個의 定義를 發見하고 限界를 定하며 우리 新聞에서만 使用하는 特有的인 句讀點과 그 實態를 分析하여 보려고 한다.

그러나 이 調査가 처음 試圖되는 것인 만큼 漸次的인 단계를 通하기 위한 關鍵으로서 意義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여기에 使用된 句讀點의 定義는 外國新聞의 境遇와 우리말본(최현배)의 월점(句讀點) 定義를 綜合하여 參考하였음을 追記한다.

目 的

新聞에 나타난 句讀點의 使用 實態를 調査 分析함으로써 現在 使用되고 있는 句讀點이 과연 주어진 定義의 카테고리와 어느 程度의 差異를 갖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아울러 句讀點의 規格과 이에 따르는 文章의 띄어 쓰기 如何를 考察하는데 있다.

本調査를 通하여 나타난 結果로서 句讀點의 定義 및 種類를 찾아내고 分類를 함으로써 無秩序하고 一貫性없는 句讀點의 整理를 期하는 하나의 基礎를 만들며 나아가서는 新聞編輯에 獨特하게 사용되는 傳統的이고 習慣的인 句讀點을 調査하여 그 本意를 찾아 使用토록 促求하려는 데도 그 目的의 一部가 있다.

假 設

上記한 調査의 目的을 達成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假設을 設定하고 接近을 試圖하였다.

1. 句讀點이 外來表記와 定義를 따라 使用되고 있으니 만큼 實際에 있어서 많은 混亂이 있을 것이다.
2. 定義된 外來表記 以外에 우리 新聞에서만 使用되는 句讀點이 있을 것이다.

3. 字號와 句讀點 規格間에 均衡이 잡혀 있지 않을 것이다.
 4. 句讀點이 使用된 文章도 띄어 쓰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 以上 4 個의 假設을 證明하는데 重點을 두고 이를 檢討하려 하였다.

이번 調査가 記事內容에 있지 않고 記事題目에 局限된 만큼 內容調査의 境遇보다 多樣성이 적을 듯 豫想되나 記事題目이란 讀者의 눈을 끌 수 있는 重要한 事項을 나타내는 것이니 만큼 句讀點 表示가 오히려 強調되고 正確性을 期하고 있을 것이라는 點과 計算單位의 便利性을 考慮하였다.

對象 및 方法

1. 日刊新聞과 大學新聞을 對象으로 하여 日刊으로는 東亞日報, 朝鮮日報, 韓國일보를 擇하고 大學新聞으로는 서울大의 大學新聞과 延世大의 연세춘추를 選定하였다.
2. 期間은 1964年 10月分으로 定하고 各新聞의 紙面敎에 따라 比重을 같도록 하였다.
3. 全面에 나타난 一段以上の 記事題目을 全數 調査하되 主題와 副題 2種까지를 對象으로 하며 選定된 題目數를 計算單位로 하였다.
4. Feature 記事는 代表的 內容表示를 題目으로 看做하였다.

定 義

本調査에 使用된 表記 및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Comma (반점) ,

- a. 複合文을 節로 區分할 境遇에 節과 節 사이를 連結시켜주는 所任 即 And, But, For, Or, Nor 또는 Yet 등과 同一한 文法的인 意味로 接續시켜 주는 所任을 한다.
- b. 序言을 修飾하는 文章을 始作하기 바로 전에 使用한다. (Comma를 使用함으로써 文章順序의 配列이 달라진다.)
- c. 2 또는 3 이상의 項을 分類할 때 使用
- d. 無制限한 修飾語를 쓸 때
- e. 插入的 要素로 使用
- f. 날(Date), 地理的 表現, 住所의 部分 表題性을 表示하는 境遇
- g. 짧은 引用, 直接的인 演說의 句, 節을 引用 혹은 質問에 答 할 때
- h. 表現의 強調를 나타내기 위해 使用
- i. 文章內容의 明確性을 表示하는데 使用
- j. 新聞에서는 Comma가 Exclamation Mark (느낌표)를 代身하는 境遇가 있다,

2. Semicolon (쌍반점) ;

Comma보다 조금 긴 쉼표로서 다음 경우에 쓰인다.

- a. 對等接續詞를 使用치 않고 獨立節로 分離 할 때
- b. 文章이 길거나 Comma가 있고 그 文章안에 對等接續詞가 使用되는 境遇

- c. 節이 오래 계속되거나 많은 節 가운데 句讀點이 이미 使用된 文章의 節을 分類 할 때
- d. Colon 을 가진 名簿나 계속된 修飾語 또는 各數値를 區分키 위해 使用된다.

3. Colon (쌍점):

- a. 名單이나 引用文을 紹介하는 境遇 單語나 文章 다음에 使用한다.
- b. 이미 한 말의 보기를 들 때
- c. 導入的 진술 뒤에 使用
- d. 이미 한 말의 結果와 原因 따위를 더할 때
- e. 지은이의 다음 책을 적을 때
- f. 시(時) 다음의 분(分)을 적을 때
- g. 聖經의 章, 節을 표시 할 때

4. Period 또는 Full-Stop (끝점 또는 온점) · , ○

- a. 內容이 完全히 끝난 文章의 末尾에 使用 “네” 또는 “아니요” 등 간단한 대답으로 전체를 대신 할 때
- b. 省略을 표할 때
- c. 命令文 또는 序文의 끝에 使用

5. Question Mark (물음표) ?

- a. 直接的인 質問에 使用한다.
- b. 어떤 事實이나 생각에 疑心을 표시 할 때
- c. 상식적으로 諷刺를 표시 할 때 使用한다.

6. Exclamation Mark (느낌표) !

- a. 強한 感動이나 느낌을 표시 할 때
- b. 強한 要求나 命令文 뒤에 각각 使用한다.
- c. 물음의 날말로써 느낌을 나타내는 文章 끝에

7. Parentheses (도립표) [] { } < >

- a. 文章內 插入句가 使用되는 境遇
- b. 數字로서 項目을 表示
- c. 계속적인 文章에서 分離된 境遇에 使用한다.

8. Dash (줄표) —

- a. 要約文 앞에
- b. 文章內에서의 突然한 變化로 文章을 一旦 中止하는 境遇
- c. 要點을 強調 할 때
- d. 個人職責을 紹介 할 때
- e. 特別한 境遇

- ① 出生日 以後(1890—)
- ② 引用文後 —Emerson

- ③ 完結되지 못한 文章 뒤
- ④ 不確實함을 나타낼 때
- ⑤ 명확한 同格에

9. Hyphen (붙임표) —

- a. 複合數值나 分類의 境遇
- b. 複合形容詞
- c. 表題나 職責이 두개 以上の 單語로 이루어질 때
- d. 接頭語 뒤에 각각 사용한다.

10. Quotation Mark (따옴표) “ ”

- a. 發言者의 確實한 말을 引用 할 때
- b. 책명, 연구, 오페라의 제목
- c. 별명에
- d. 技術的 用語나 諷刺를 表示하는 單語를 뚜렷이 하기 위해

11. Apostrophe (줄임표) ’

- a. 省略으로 縮少의 意味 를 나타낼 때
- b. 所有를 表示할 때

12. Ellipsis Periods (점줄) …

- a. 文章이 中間에서 끝나 想像의 餘地를 남겨줄 때

13. 其 他

위에 표시한 句讀點 以外에 우리 新聞에 使用되는 句讀點을 豫備調査한 결과 다음 4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음을 發見하였다.

即 ·, 『 』, ||, “ ” 로써 오히려 明示된 句讀點 以上으로 그 頻度가 높음을 알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4 가지의 句讀點 Category 에서 그 使用 頻度를 調査하였다.

그러나 이 句讀點은 規約이 없이 習慣의 一貫性없이 使用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明確한 우리말 名稱조차 알수 없으므로 各各 其他 I II III IV로 하여 그 句讀點의 그 表記만 을 하였다.

그리고 이에 對한 Category 別 分離는 위에서 定義된 內容을 基盤으로 하였다.

本調査는 크게 두가지로 分類하여 各各 다른 標本을 定하여 첫번에는 주어진 定義의 內容을 Category 로한 句讀點別 使用別 調査를 하여 句讀點別 使用別 統計를 내었으며 그 使用頻度를 各各 調査하였다.

다음에는 句讀點의 表示와 關係되는 文章을 選定하여 그곳에 使用된 句讀點의 規格과 使用의 옳고 그름 그리고 이에 따른 경우 더어 쓰기 與否도 함께 調査하고 統計化하였다.

句讀點의 內容別 分類를 說明하기 前에 新聞의 句讀點 使用別 統計를 <表 1>에서 보던 日刊 新聞은 各各 東亞日報가 全體의 25%, 朝鮮日報가 23%, 韓國日報가 24%로써 비슷한 使用量을 나타내고 있으나 大學新聞의 境遇는 近似한 紙面임에도 不拘하고 서울大의 大學新聞이 14%, 延

<表 1>

句讀點別新聞別統計

新聞名	句讀點別															計	%
	,	;	:	..	?	!	()	—	-	“ ”	『 』		” ”		
東亞日報	34	—	—	—	5	—	—	1	—	17	9	25	49	8	2	150	26
朝鮮日報	15	—	—	—	3	—	2	—	—	10	15	23	60	2	6	136	24
한글일보	23	—	—	—	2	—	—	3	1	12	18	14	70	—	1	144	25
대학신문	4	—	1	—	2	1	4	3	—	5	5	19	31	10	1	86	14
연세춘추	23	—	3	6	1	1	6	9	2	1	1	9	7	—	1	70	11
計	99	—	4	6	13	2	12	16	3	45	48	90	217	20	11	586	—
%	16	—	0.6	1	2	0.3	2	2.7	0.6	7	8	16	38	4	1.8	—	100

世大의 연세춘추가 11%로서 거의 半量에 該當하는 差異를 이루고 있다.

그 主要한 理由는 各面을 통한 記事數의 差에서 나타나며 더구나 政治 및 社會面의 感情變化에 句讀가 많이 使用되었다. 各 句讀點의 使用量을 보면 Comma가 전체의 16%로서 가장 많이 使用되었으며 다음이 Ellipsis Period (점줄)와 Quotation Mark (따옴표)의 順位이다.

反面에 여기서 전혀 使用되지 않은 句讀點은 Semicolon (쌍만점)과 Apostrophe (줄임표)의 두 가지 였다. 이중 특히 Apostrophe는 定義가 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 文章에 應用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최현배 著 우리말본 참조). Semicolon은 使用되고 있으나 아직도 그 活用度가 적은 탓인지 금번 調査에서는 찾아 볼수 없었던 唯一한 句讀點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定義가 明示된 句讀點보다는 오히려 慣習의으로 使用되어 온 句讀點의 量이 더욱 많다는 것이다.

<表 1>에 나타난 바와같이 其他로 看做했던 4項 即 ., 『 』, ||, ” ” 등이 全體의 56.8%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注目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부터 句讀點別 內容別 分類를 通하여 細部의인 問題를 檢討하겠다. 이 結果를 通하여 나타나는 統計로서 새로운 定義를 試圖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調 査 內 容 I

COMMA (반점) ；

Comma는 比較的 正確하게 많이 使用되고 있으나 그 모양에 있어서 大端히 不自然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본래 가로 쓰기의 형태를 變化시키지 않고 세로쓰기에 그대로 사용한 때문인지 그 形態가 各樣 各色이었다. <表 2>의 Comma의 境遇는 大部分 定義된 Category內에서 사용되었으며 모양에 관계없이 거의 同一하게 사용되었으나 서울大의 경우가 가장 적었다.

다만 例外的인 것은 紹介語 다음에 Comma를 代身한 것 뿐이었다.

<表 2>

COMMA

新聞別 內容別	東亞	朝鮮	한국	大學	연세	計
接續詞 役割	—	—	—	2	3	5
序言을 修飾하는 文章 前에	26	13	22	1	2	64
項 을 分 類	5	2	1	—	8	16
無制限한 修飾語	—	—	—	—	—	—
插入的 要素	1	—	—	—	—	1
날, 地理的 表現, 住所의 部分 表題, 性을 表示	—	—	—	1	8	9
짧은 引用에 答할 때	—	—	—	—	—	—
表現사이의 強調	—	—	—	—	—	—
文章內容의 明確性 表示	—	—	—	—	—	—
※紹介 語 뒤 에	2	—	—	—	2	4
計	34	15	23	4	23	99

註 ※表는 例外的인 境遇를 나타냄.

SEMICOLON (쌍반점) :

定義가 되었으나 使用되지 않은 唯一한 句讀點이었다. 記事題目만을 對象으로 하였기 때문에 對等接續詞나 Comma 를 二重으로 사용할만큼 文章이 길지 못하다는데도 原因이 있을듯 하나 實際에 있어서 이 경우에도 Comma (반점)나 Colon (쌍점)을 使用하였다.

다른 理由를 들어 본다면 Semicolon 을 使用할 文章이 없다가 보다는 오히려 그 形態의 不自然스러움으로 因한 것이라 생각된다.

<表 3>

SEMICOLON

新聞別 內容別	東亞	朝鮮	한국	大學	연세	計
對等接續詞를 使用치 않고 獨立節로 分離時	—	—	—	—	—	—
文章이 길거나 Comma 가 있고 그 文章 안에 對等接續詞가 있는 境遇	—	—	—	—	—	—
節이 오래 계속되거나 많은 節 가운데 句讀點이 이미 使用된 文章의 節을分類	—	—	—	—	—	—
Colon 을 가진 명부나 계속된 修飾語 또는 各 數值을 區分키 爲해	—	—	—	—	—	—
計	—	—	—	—	—	0

COLON (쌍점) :

<表 4>에 나타난 것을 보면 大學新聞(서울大) 1件, 연세춘추가 3件이었다.

그 內容을 보면 Colon 의 原意味대로 使用된 것이 연세춘추의 경우 即 「배구 : 국문학과, 야구 철학과 우승」이고 大學新聞의 境遇 「靑鶴山溪谷의 小金剛 : 雄壯한 規模의 華嚴寺」로서 後者의 境遇 오히려 Semicolon 이나 comma 의 사용이 옳을 것이나 colon 이 接續詞의 意味로 使用되었다.

PERIOD (끝점) .

Period (끝점)이나 Full-Stop (온점)은 新聞記事의 題目에서 使用되지 않는것이 原則이다. 다만 記事題目 가운데 英文略字가 있는 경우에 限해서 省略的 意味로 Period (끝점)가 使用된다. <表 5>에서 보여주는 바와같이 다만 연세춘추의 6件만이 唯一한 統計數字로 나타났으나 이것이 其

<表 4>

COLON

新聞別 內容別	東亞	朝鮮	한국	大學	연세	계
명단이나 引用文을 紹介하는 單語나 文章 다음에 使用(내용이나 所屬)	—	—	—	—	3	3
※接續詞 役制	—	—	—	1	—	1
計	—	—	—	1	3	4

<表 5>

PERIOD

新聞別 內容別	東亞	朝鮮	한국	大學	연세	計
內容이 完全히 끝난 文章의 末尾에 使用	—	—	—	—	—	—
간단한 代답으로 全體를 代身 할 때	—	—	—	—	—	—
省略的 意味로 使用	—	—	—	—	6	6
計	—	—	—	—	6	6

他の 新聞에서는 全히 使用치 않고 있다는 意味가 아니다.

물론 다른 新聞에서도 使用하고 있으나 세로 쓰기 編輯에 不適當한 때문이지 大部分의 세로 쓰기 新聞에는 끝점(省略的 意味)이 其他 I의 ·로 代身 使用되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句讀點을 使用치 않고 다만 略字를 계속 나열하였다. Period (끝점)와 其他 I의 ·은 서로 分離하여 調査함으로써 句讀點의 形態에 따라 別個의 項을 設定하였다.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의 差의 例를 들면 略字 R.O.T.C.의 경우 가로 쓰기는 不自然스러움이 없이 그대로 使用할 수 있으나 세로 쓰기의 경우는 ㄹ·O·T·C·로 옮겨 놓게 될 것이다.

때문에 글자의 均衡이 잡히지 않게 된다. 이러한 理由 때문인지 大部分의 세로쓰기에는 Period (끝점)를 使用치 않고 다만 R.O.T.C.로 표시하면 句讀點을 使用할 때는 R.O.T.C.로서 그 省略的 意味를 나타낸다.

QUESTION MARK (물음표) ?

比較的 正確하게 使用되며 均衡의 點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때때로 文字의 크기와 句讀點의 規格이 엄청나게 차이가 問題될뿐 그 內容에 있어서는 異義가 있을 수 없었다.

<表 6>

QUESTION MARK

新聞別 內容別	東亞	朝鮮	한국	大學	연세	계
直接的인 質問에	—	—	—	—	—	—
어떤 事實이나 생각에 疑心을 나타낼 때	5	2	2	2	—	11
想像的으로 諷刺를 表示 할 때	—	1	—	—	1	2
計	5	3	2	2	1	13

<表 6>에 나타난 바와같이 例外欄이 없는 것은 그러한 意味를 充分히 證明해 주고 있다.

그러나 實際로 Question Mark가 사용된 곳을 보면 新聞의 特殊性 때문인지 直接的 質問보다 疑心과 諷刺에만 使用된 것을 알수 있다. 規格과 關係된 說明은 調査內容Ⅱ에서 追加하였다.

EXCLAMATION MARK (느낌표) !

Exclamation Mark (느낌표)는 新聞에서 흔히 發見할 수가 없다. 同一한 生活舞臺와 制限된 思考方式이 엄청난 生活의 變化를 制限하는 때문인지 特殊한 行事나 強한 感動을 表示하는 느낌표는 없었다. 다만 연세춘추의 社說題目에 「피차에 최선을 다하자!」와 大學新聞의 경우 가을의 명승지를 紹介하는 內容의 表題로서 「어디로 가시렵니까!」에 가벼운 感動을 表示하는데 使用한 두지가 뿐이었다.

<表 7> EXCLAMATION MARK

內 容 別	新 聞 別					
	東 亞	朝 鮮	한 國	大 學	연 세	計
強한 感動이나 느낌을 표시 할 때	—	—	—	—	—	—
強한 要求나 命令文 뒤	—	—	—	—	1	1
가벼운 疑問	—	—	—	1	—	1
計	—	—	—	1	1	2

本調査의 統計에는 包含되지 않았으나 올림픽 期間中 勝利와 感激을 表示하는데 Exclamation Mark 를 使用한 境遇가 있었다.

PARENTHESES (도립) () { } < >

Parentheses 는 그 形態에 있어서 (), { }, < >, 等 比較의 多樣한 種類이며 實際로 內容 表記에 있어서도 약간의 差異點을 지니고 있으나 여기서는 一括하여 統計化하였다.

이 Parentheses 의 定義는 (), 와 { } 두개의 경우를 따랐으며 <表 8>의 內容別 Category 를 定하였다. 大部分 記事題目이어서 挿入句를 使用할만큼 文章이 길지 못한 關係인지 日刊新聞의 境遇는 거의 없었고 다만 Feature story 나 大學新聞중 一面을 除外한 2,3面은 大部分 論文이나 其他 翻譯文을 全面掲載함으로 自然히 內容을 表示하는 文章과 그에 따른 說明을 크게 表題化하는 境遇의 說明的인 文章에 많이 使用되었다.

<表 8> PARENTHESES

內 容 別	新 聞 別					
	東 亞	朝 鮮	한 國	大 學	연 세	計
文章內 挿入句가 使用되는 境遇	—	—	—	—	2	2
數字로서 項目을 表示하는 境遇	—	—	—	—	—	—
계속적 文章에서 分離된 文章의 境遇	—	—	—	—	—	—
※文章의 強調	—	1	—	—	—	1
※表題나 職責이 두 單語 以上인 경우	—	1	—	—	—	1
※單語의 內容 및 所屬 表示	—	—	—	4	4	8
計	—	2	—	4	6	12

<表 8>에 나타난 바와같이 挿入句로 使用된 境遇는 위에서 말한 論文이나 翻譯物의 內容을

表示하는 表題가 한줄 以上の 경우로서 계속되는 意味의 文章을 나눈 경우이다.

그러나 모든 新聞의 記事題目에 使用된 경우 單語의 內容이나 所屬 혹은 職責을 表示하는 때에 限하였다. 이것은 內容 Category에 該當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Parentheses 보다 Colon 으로 代替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DASH (줄표) —

Dash 는 定義된 句讀點 가운데서 가장 많은 定義의 內容을 包含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內容의 性格만큼 活用이 잘 되고 있지 못하다.

<表 9>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많은 內容別 Category 에도 不拘하고 大部分의 新聞이 단 하나 即 出生日 및 日字限界區分(……부터……까지)에만 一括하여 使用되었고 同格의 意味로서 「商品廣告 不信論—無用論」(연세춘추 1964. 10. 5)에 適用된 것뿐이었다.

<表 9>

DASH

新聞別 內容別	東亞	朝鮮	韓國	大學	연세	計
要約文 앞에	—	—	—	—	—	—
文章內에서 突進한 變化로 文章을 일단 中止하는 境遇	—	—	—	—	—	—
要點을 強調 할 때	—	—	—	—	—	—
個人職責을 紹介 할 때	—	—	—	—	—	—
出生日 以後 및 限界區分 表示	1	—	2	3	8	14
引用文後	—	—	—	—	—	—
完決되지 못한 文章 뒤	—	—	—	—	—	—
불확실함을 나타낼 때	—	—	—	—	—	—
명확한 同格에	—	—	—	—	1	1
※序言이나 單語를 修飾補充 할 때	—	—	1	—	—	1
計	1	—	3	3	9	16

그리고 例外的 意味로서 序言이나 單語를 修飾補充하는 境遇에 1件이 使用되었다. 上記 定義된 Category 에 사용된 句讀點은 日字限界 區分의 경우 直錄(—) 代身 曲線(~)이 많이 使用된 것이 外國의 境遇와 다른 點이라 할 수 있겠다.

HYPHEN (붙임표) —

Hyphen (붙임표)은 거의 必要를 느끼지 않을 程度로 아주 적게 使用되었다. 이 句讀點이야말로 우리 文章에 不適한 것이라고 斷定해도 無妨할 程度였다. 表題나 職責이 두개의 單語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即 YM-YWCA 였다. 그 以外에는 例外 單語사이의 區分表示와 單語의 內容 및 理由表示로서 쓰여진것 문이었다.

QUOTATION MARK (따옴표) “ ”

Quotation Mark (“ ”)는 정확하게 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表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어진 內容의 Category 內에서만 全部 쓰여 졌다.

이 가운데 大部分이 發言者의 말을 引用하는데 쓰여졌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記事의 題目은 讀者들이 興味를 갖고 그 內容을 읽을 수 있도록 誘導시키는 所任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그

<表 10>

HYPHEN

內 容 別	新 聞 別						計
	東 亞	朝 鮮	한 國	大 學	연 세		
複合數値의 分類	—	—	—	—	—	—	—
複合形容詞	—	—	—	—	—	—	—
表題나 職責이 두개 以上으로 이루어질 때	—	—	—	—	1	—	1
接頭語 뒤에	—	—	—	—	—	—	—
※單語 사이의 區分表示	—	—	—	—	1	—	1
※單語의 內容 및 理由表示	—	—	1	—	—	—	1
計	—	—	1	—	2	—	3

<表 11>

QUOTATION MARK

內 容 別	新 聞 別						計
	東 亞	朝 鮮	한 國	大 學	연 세		
發言者의 確實한 말을 引用時	17	7	11	5	1	—	41
책명, 연극이나 오페라 題目, 노래, 講演의 主題	—	—	—	—	—	—	—
별명 및 諷刺을 表示	—	—	—	—	—	—	—
技術用語 및 單語을 性格을 뚜렷이 하기 위해서(強調)	—	—	1	—	—	—	4
計	17	10	12	5	1	—	45

리고 重要한 內容을 짧게 표현하는 것이 생명인 關係로 政治面이나 社會面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Comma의 境遇처럼 세로 쓰기에 사용된 따옴표는 그 形態나 規格에 있어서 가운 좋지 않았다.

內容 Category 중 제일 처음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따옴표 即 技術用語 및 單語의 性格을 뚜렷이 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되었을 뿐 나머지 두개의 Category에는 解當되는 것이 없었다. 그 밖에 Quotation Mark(따옴표)의 意味를 가지고서도 오히려 其他의 「」, “ ” 等 例外的인 句讀點이 더 많이 使用되었다.

<表 12>

ELLIPSIS PERIODS

內 容 別	新 聞 別						計
	東 亞	朝 鮮	한 國	大 學	연 세		
文章이 中間에서 끝나 想像의 餘地를 남겨줄 때	3	10	6	3	1	—	23
※紹介語 뒤에	1	—	—	—	—	—	1
※項의 分類	—	—	4	—	—	—	4
※文章이 끝날 때	—	—	1	—	—	—	1
※文章의 突然한 變化	—	—	2	—	—	—	2
※單語의 內容表示	3	—	—	—	—	—	3
※계속적 文章의 分離	—	1	2	—	—	—	3
※序言을 修飾하고 補充하여 態度를 說明	2	3	3	—	—	—	8
※引用文後(前)	—	—	—	1	—	—	1
※文章의 強調	—	—	1	1	—	—	2
計	9	14	19	5	1	—	48

註: ※ 表는 Definition 된 內容 以外의 경우를 表示함.

ELLIPSIS PERIODS (점줄) ...

Ellipsis Periods 는 그 사용되는 意味가 간단하고 分明하다. 卽 文章이 中途에서 끝나 想像의 餘地를 남겨 줄 때만 適用된다. 그러나 <表 12>에 나타난 바와같이 Ellipsis Periods 는 그 使用에 있어서 엄청난 多樣性을 보이고 있다. 多樣性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無秩序하다는 것이 옳은 表現일듯 하다. <表 12>에서 1項을 除外하고서는 모두 基本的 意味를 나타내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나머지 部分은 Comma 나 Dash 혹은 Quotation 으로 代替되어야 옳을 것이다.

比較的 使用이 잘된 境遇의 例를 들면 「敗群속에 勝將도……」(東亞 64. 10. 27), 「머리의 後進打開를……」(東亞 64. 10. 25), 「그 뜻 다시 퍼지 못한채……」(서울大學新聞 54. 10. 8)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멕시코서 만남시다……東京 올림픽 오늘 피날레」(한국 64. 10. 24)는 Ellipsis Period가 잘못 使用되었다. 오히려 Dash 나 Colon 이 適當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경우 卽

各學會서 學術大會

原子力……오늘부터, 歷史學……내일부터

의 Ellipsis Periods 의 使用 意味는 알겠으나 原來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그 以外 「어제 유엔의날 紀念式」의 경우 (한국 64. 10. 28) 強調의 意味로 使用되었다.

其 他 I .

其他에서 취급된 「·」, 『』, 〃, ” ” 等은 定義自體가 明確하게 規定되어 있지 않으니 만큼 주어진 Category에 適用시켜 그 使用處와 그 使用頻度를 調査하려 하였다.

<表 13> 가운뎃점 (中點)

新聞別	東亞	朝鮮	한국	大學	연세	計
內容別						
接續詞 役割	—	—	1	1	—	2
項의 分類	7	11	6	2	—	26
日字, 地理的表示, 住所의 部分, 表題 및 省略的인 意味	—	—	—	2	—	2
明確한 同格	15	8	3	6	5	37
單語의 內容 所管 및 理由表示	—	—	—	—	1	1
複合數値의 分類	2	—	1	2	—	5
表題值의 職名 두 單語 以上일 때 (人名包名)	1	4	2	6	—	13
序言이나 單語를 修飾 및 補充 할 때	—	—	1	—	3	4
計	25	23	14	19	9	90

接續詞 役割을 하는 境遇는 대단히 적으나 때때로 發見할 수 있었다. 다만 · 이 接續詞 役割이나 同格이나 또는 內容을 說明하기 위한 것이나 의 差異를 明確히 區分 할 때 많은 곤란을 당했다.

例를 들면 「문턱엔 中共·總會延期도 처음」(한국 64. 10. 24), 「世界通商 自由化·『나토』核軍에 協助」(本統計와 無關) 「柴炭·書籍·朋友」였다.

記事題目만 가지고서는 上記 例의 두가지에는 서로 다른 意味로 解析할 수가 있었다. 처음 경

우 「문턱엔 中共・總會延期도 처음」은 「中共이 UN에 加入하려고 虎視眈眈 機會를 노리고 있다」는 말과 豫算關係로 總會延期가 NU 機構 創設 以後 처음이라는 별개의 文章으로 分離하여 接續詞 役割로 規定하였다.

「世界通商 自由化・『나토』核軍에 協助」는 語意解析에 있어서 世界通商 自由化 및 『나토』核軍에 協助한다는 意味나 그렇지 않으면 世界通商 自由化가 『나토』核軍에 協助된다는 이야기나 로 解析될 수 있었으나 內容을 검토하여 前者로 規定한다는 方式을 取하였다.

마지막 경우의 「柴炭・書籍・朋友」는 別途의 性格을 가진 獨特한 性格으로 規定하여 同格인듯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다만 단순한 順序의 配列을 意味한다는 結論을 내렸다.

省略的인 의미로서는 구태여 적용시켜 본다면 가로쓰기의 Periods를 세로에 使用할 수 없는 때문인지 R.O.T.C. 혹은 S.C.A.의 경우 세로쓰기 하여 나타내는 모양은 ROTC 혹은 SCA로 하였다. 사실상 Period의 뜻으로 사용되거나 그 나타낸 모양이 가운데점의 형태를 취하였으므로 豫備調査의 결과로 그 判斷基準을 세웠으나 이번의 調査가운데는 다만 ·를 使用치 않은 ROTC와 SCA 만이 있었으므로 統計欄에서는 나타내지 않았다. 同格인 意味로는 쉽게 또 많이 發見할 수 있다. 例를 들면 「政府・與黨」이나 혹은 「韓・美・日」 등이다.

複合數値의 境遇는 4・19, 5・16, 6・3을 그 例로 말할 수 있고 序言이나 單語를 修飾 또는 補充할 境遇가 있으나 희소하다. 연세춘추(10. 26)의 경우 即 <컷・回轉>으로서 ·은 컷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說明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統計化하였다.

其 他 II 『』, 「」

「」, 『』는 文章의 強調, 固有名詞, 外國人名 및 두개 以上の 單語를 使用하는 때 그리고 普通 外來語를 다루는데 쓰여졌다.

<表 14>

「」『』

內 容 別	新 聞 別						計
	東 亞	朝 鮮	한 國	大 學	연 세		
文章의 強調	15	23	22	5	—	65	
固有名詞	17	15	20	6	7	65	
外國人名 및 두개 以上の 複合語	—	14	13	12	—	39	
普通外來語	17	8	15	8	—	48	
計	49	60	70	31	7	217	

<表 14>에 나타난 바와같이 모두 4개의 Category 내에서 쓰여진 이 句讀點은 전체중에서 가장 많은 數字를 보여 주고 있다.

其他에서 취급된 句讀點 모두가 그 使用되는 領域이 넓고 多樣性이 많다. 例로 다음의 文章에서 그 多樣性을 分類해 보겠다. 即 「古三」, 「자짜리名堂」으로 「테뷰」(조선 64. 10. 27) 중 처음의 「古三」은 地名으로 固有名詞이며 「자짜리 名堂」은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가 하는 것을 強調하는 경우이며 「테뷰」는 말할 필요도 없이 外來語이다.

이 밖에도 外國人名이나 두개의 單語 以上으로 된 外來語나 特殊名稱에는 大部分 이것을 사용

招來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言語의 ニュアンス가 있다는 것을 暗示해 주고 있다.

둘째로 定義되지 않고 句讀點의 機能을 發揮하는 其他의 4 가지는 우리 新聞에서 使用되는 默示的 또는 慣習的인 것이니 만큼 새로운 定義를 내립으로서 明確한 用途를 發見 提示해야 할 것이다.

調査 內容 II

調査內容 II는 I의 調査를 補充하는 意味에서 句讀點에 關係되는 몇가지 事項을 客觀化시켜 完全한 文章이 지니는 句讀點의 表示와 規格 그리고 이에 따르는 文章의 [떠어 쓰기를 觀察하였다. 여기서 取扱한 對象은 比較的 完全하다고 생각되는 文章의 句讀點의 規格 如何와 使用의 율고 그럼 그 文章의 떠어 쓰기를 檢討하였다. 하지만 이는 比較的 特殊 Case의 題目이며 또 完全한 文章단을 擇하였다는 點에서 그 一般性이 缺如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처음 計劃으로는 여기서 文章全體 即 句讀點이 使用되어야 할 경우이나 使用하지 않은 點, 不必要하나 使用된 點을 糾明하려 하였으나 問題가 너무 龐大하여 理解와 選擇이 쉬운 方法을 于先 適用시켜 본 것이다. 勿論 一般的인 通念으로서도 우리 新聞文章에 떠어 쓰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知悉되고 있다. 때문에 <表 17>에 나타난 調査는 一般的인 通念의 再確認 乃至 肯定을 도울는데 寄與할 것이라 생각되기에 追加키로 한 것이다.

이 表에서 句讀點別 欄은 <表 1>에서 調査한 內容을 再確認하여 주었다. 句讀點 表示에 있어서는 比較的 正確하게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統計에 나타난 結果를 보면 「句讀點 表示가 맞는다」 境遇에 80%, 「틀린다」 20%로서 整理의 餘地가 많다는 것을 들어내고 있다.

<表 17> 句讀點 內容別 調査表

關係別 內容別 新聞別	句 讀 點 別										句讀點表示		句讀點規格		떠어 쓰기	
	'	:	?	!	()	-	-	“ ”	…	計	맞는다	틀린다	맞는다	틀린다	맞는다	틀린다
東亞日報	13	—	2	—	—	—	—	8	10	33	25	8	19	14	6	27
朝鮮日報	12	—	4	—	—	—	1	9	16	42	29	13	32	10	10	32
한국일보	17	—	2	—	—	—	1	10	14	44	33	11	21	23	11	33
大學新聞	5	1	2	1	2	1	—	7	7	26	22	4	22	4	14	12
연세춘추	28	1	1	1	5	5	2	1	1	45	43	2	29	16	45	0
計	75	2	11	2	7	6	4	35	48	190	152	38	123	67	86	104
%	39	1	6	1	4	3	2	18	26	100	80	20	64	36	45	55

이를 新聞別로 보면 日刊 新聞 보다는 比較的 大學新聞이 낡은 편이나 日刊 新聞中 朝鮮日報는 맞는다 69.1%, 틀린다 30.9%로서 가장 많은 數字가 나타나 있으나 연세춘추는 가로쓰기와 한글을 전용하는 때문인지 맞는다 96%, 틀린다 4% 로서 가장 좋은 편이다.

句讀點 規格에 있어서는 참으로 多樣한 現象을 나타내고 있는데 때로는 苦笑을 禁치 못할만큼 이상한 表現들이 많았다.

마치 句讀點의 規格이 文章의 字號와 關係없이 句讀點의 規格이 特性 乃至 感情의 強度를 表示하고 있다는 觀念을 編輯者들이 갖고 있지 않은가 疑心할 程度였다. 여기에 일일이 옮길수 없고 비록 그것을 옮긴다 하더라도 그만큼 實感을 나타낼 수는 없으나 그 例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遼都說 뒤엔 피의 손길이……」(朝鮮日報 64. 10. 27)란 Title 중 Ellipsis Periods의 規格과 西方列強……「올겨져자먹기」?(同 10. 25) 중 Question Mark의 規格은 참으로 對照的이었다.

그 밖에도 「그 原因은 무엇인가?」(東亞 64. 10. 25)의 Question Mark와 이번 統計에서는 除外되었으나 올림픽 期間中の 日刊 題目에는 Exclamation Mark가 눈에 띄었으나 모두 불품 없는 規格의 表示가 많았다.

Question Mark의 例를 하나 더 들어 말한다면 「共存政策을 踏襲?」(東亞 64. 10. 15)이란 表題는 4段의 고딕체이나 여기 사용된 Question Mark는 쉽게 눈에 띄지 않을 程度로 적은것을 使用하였다. 規格關係를 新聞別로 보면 韓國日報가 맞는다 48%, 틀린다 52%로서 가장 많은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全體的인 %를 보더라도 맞는다 64%, 틀린다 36%로서 엄청난 差異를 나타내고 있는 理由는 新聞社內에 句讀點 活字가 未備한 탓인가 그렇지 않으면 感情의 強度를 句讀點 規格의 大小의 差로서 나타내려는 意圖이든가 하는데 있을 것이다. 前者와 後者は 모두 옳은 方向으로 새로운 試圖가 要求된다.

마지막으로 띄어 쓰기의 경우를 보면 東亞日報가 잘 됐다 18% 못됐다 82%로서 나타났고, 朝鮮日報가 잘 됐다 23% 못됐다 77%로서 日刊新聞은 大部分 띄어 쓰기에 無關心한 面을 보여주고 있으나 연세춘추만이 띄어 쓰기에 唯獨 100%로서 잘돼 있음을 發見하였다.

句讀點의 表示, 規格, 그리고 이에 따르는 띄어 쓰기 問題는 이대로 無秩序한 가운데 계속하여 사용된다는 것은 文化傳達의 尖端을 誇示하는 點에서 뿐만 아니라 教育의인 面에서도 크게 影響을 줄 것이다. 물론 이 問題는 一時的인 解決은 될 수 없다. 그러나 漸次的인 여러 단계를 거쳐 社會의 Leader로 再丹粧해 주기를 바란다.

結 論

以上の 調査를 通하여 假說로 設定하였던 4가지의 假說을 大部分 證明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그 內容을 檢討한다면 첫째 「句讀點이 外來表記와 定義를 使用하고 있느니 만큼 실제 사용에는 많은 混亂이 있을 것이다」였다. 統計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句讀點別 內容別 統計에는 例外로 定義된 以外の 境遇가 많음을 發見할 수 있다. 이는 단적으로 完全한 定義를 認識치 못했거나 言語 意味上의 差로 混亂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定義된 外來表記 以外에 우리 新聞에서만 使用되는 句讀點이 있을 것이다」〈表 1〉에 나타난 바와같이 定義된 句讀點以外에 「·」, 「」, 「||」, 「''' '''」의 4種類를 發見할 수 있었다. 이들 4가지는 定義되지 않은채 傳統的 乃至 慣習的으로 使用되어 오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定義된 句讀點보다도 많은 使用回數 即 53.8%라는 것은 우리에게 再研究의 餘地를 남겨 주고 있다. 定義조차 되지않은 句讀點을 이토록 많이 使用한다는 것은 어딘지 讀者와 編輯者와의 呼

吸이 一우致되지 않은듯 생각되어 어떤 距離感조차 느끼게 한다.

뉴스와 文化의 尖端을 誇示하는 新聞이 句讀點 하나에 이처럼 無秩序한 것은 讀者로 하여금 文化 및 教育上 커다란 誤解를 갖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이 至極히 部分的인 것이라고 가벼히 넘길 수도 있으나 만약 이대로 계속된다면 그것은 編輯者와 讀者間의 더 큰 混亂을 주는 結果를 招來할 것이다. 勿論 定義가 안된 句讀點이라 하더라도 漢文과 慣習에 젖은 사람들은 困難이 없겠으나 새로운 教育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混亂과 難解를 더 한층 느끼게 할 것이다.

셋째 「字號와 句讀點 規格間에 均衡이 잡혀 있지 않을 것이다」는 假說은 調査內容 I 에서 說明한바와 같이 全體의으로 맞는다 64%, 틀린다 36%로서 엄청난 數字를 보여 주고 있다. 特記할 것은 句讀點의 規格으로서 感情의 強度를 나타내는 듯이 보여지는데 이것은 참으로 無意味한 表現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句讀點이 使用된 文章도 띠어 쓰기가 되어있지 않을 것이다」는 一般의 觀念을 再確認하는 所任을 하였는데 사실 띠어 쓰기에는 아주 等閒視하고 있는 편이다. 特히 記事 題目의 억지 表現으로 가끔 誤解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對한 時急한 是正이 要求된다.

參 考 文 獻

- ① Newspaper Hand-Book by Grant Milnor Hyde D. Appleton-Century Co.
- ② Everyday Hand-Book Series Grammar, Rhetoric and Composition for Home Study by Richard D. Mallery
- ③ 우리말본 최현배 지음